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23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2022년 신년특별기획

“김선주 교수(하버드대학교 EALC학과 교수)와의 Roundtable”

○ 일시: 1월 28일(금) 10:00 ~ 12:00

○ 장소: Zoom 회의

이 자료집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019S1A5C2A02082825)

목차

1. 취지 및 논제 관련 자료
(심희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사회사 센터장) 4
2. 김선주 교수님 약력 소개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 6
3. 「Adoption in Chosŏn Korea and in the Yu Taech'ing Family」 By Sun Joo KIM 내용 요약
(정윤경,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연구보조원) 12

○ 취지

김선주 교수(Sun Joo Kim, Harvard-Yenching Professor of Korean History)는 2020년에 "Yu Taech'ing Family Documents and the Kigye Yu of Puyŏ"를 포함한 4개의 논문과 고문서 번역을 Acta Koreana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vol.23, no.1,에 발표하셨고, 뒤이어 <<유대칭가 고문서>>(2021, 민속원)를 출간하셨습니다. 위 논문과 저서의 서문에 따르면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연구팀의 공동연구원인 박경 교수, 김경숙 교수 등 여러 한국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 논문과 저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사회사센터(Center for Socio-legal History)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최근의 주목할만한 연구업적이어서 2022년 신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시간은 오전 10시이지만 미국 보스턴은 저녁 8시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불편한 시간대이지만 공간적으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고, 또 비대면이어서 방역에도 문제가 없어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바쁘신 일정인데도 라운드테이블을 허락하신 김선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Roundtable이란?

딱딱한 강연이나 발표 형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위 논문(학술정보원에서 영문논문을 각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과 저술을 미리 검토한 상태에서 격의 없이 질의, 논평, 부연설명요구, 문제 제기, 장래의 연구과제의 탐색을 행하는 비공식적(informal) 회의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하경 교수의 김선주 교수 약력 소개(5분 이내), 19세기팀 연구보조원(정윤경)이 아주 짚막하게 김선주 교수의 2020년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PPT를 준비(10분 이내)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박경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됩니다.

○ 위 논제와 관련된 공개된 동영상

위 논제와 관련된 공개된 동영상(영어)의 URL은 다음과 같으니 미리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Korean Treasures at Harvard

<https://vimeo.com/channels/koreantreasures>

"Yu Taech'ing Family Documents and the Kigye Yu of Puyŏ." Acta Koreana 23.1 (2020): 65-96.

<https://vimeo.com/465508047>

"Inheritance Document and Mutual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hwahoe sŏngmun 和會成文)." Acta Koreana 23.1 (2020): 97-114.

<https://vimeo.com/465509889>

"Adoption in Chosŏn Korea and in the Yu Taech'ing Family." *Acta Koreana* 23.1 (2020): 115–34.

<https://vimeo.com/465510633>

"The Certified Copy of the Household Register (Chun hogu 準戶口) of the Yu Taech'ing Family and Household Slaves (solnobi 率奴婢)." *Acta Koreana* 23.1 (2020): 135–68.

<https://vimeo.com/465511267>

"Examination Answer Sheet"

https://vimeo.com/465512618?embedded=false&source=video_title&owner=9271159

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하경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김선주교수님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2013년에 방문연구로 하바드옌칭연구소로 갔었고, 그때 김선주 교수님이 제 지도교수님이셔서 수업도 청강하고 선생님 덕분에 잘 지내다 왔습니다. 간략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선주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의 하바드 옌칭 한국사 교수이십니다. 1984년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2000년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홍경래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제가 크게 4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우선,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The Hong Kyŏngnae Rebellion of 1812*,

이 책은 교수님의 박사학위논문이 토대가 된 연구이며, 2007년에 출간되었고,

반갑게도 지난 2020년에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난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푸른 역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he North: Resurrecting Regional Identity Through the Life and Work of Yi Shihang (1672-1736)* 라는 제목으로 201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조선후기 이시항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일생과 그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평안지역에서의 지역사, 문화사, 그리고 그가 받았던 정치적 사회적 탄압에 대해서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정원 박사님과 함께 검안문건 8건을 번역하신 *Wrongful Deaths*가 201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정치학자인 제가 법제사에 크게 관심을 갖게된 것은 김선주교수님이 전근대 원전 강독 수업과 이 책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두가 포함된 공초기록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데,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진행한바 있고, 이 때 다루었던 살인사건들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외 다양한 학술논문을 저술하고 계십니다.

최근의 글들만 꼽아보자면, 오늘 발표하시는 유대칭 고문서 관련글들을 2020년에 *ActaKoreana*에 출간하신 바 있고, 2019년에는 *My own flesh and blood: stratified parental compassion and law in Korean slavery* 라는 제목으로 *Social history*에 발표하셨습니다. 이 글은 미암 유희춘이 자신의 서녀를 얼마나 아끼고, 특히 서녀를 방매하면서 “골육”이라고 표현하는 지점들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노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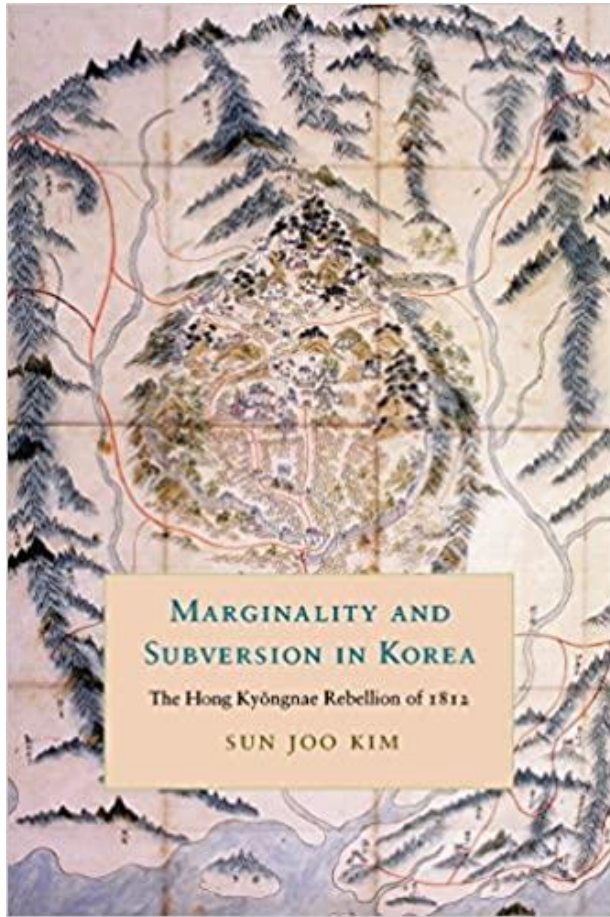
2016년에는 이세직(이일직)의 활동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정치와 외교, 2016년에는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글을 쓰셨습니다. 그 외 하바드-옌칭도서관의 유일본인, 제주도여행일지, 숙천제아도 등의 영인본을 출간하였는데 관련 글들도 계속 학술지에 게재하고 계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넓게 본다면 조선시대 사회사 문화사에 주목하고 계시며, 특히 한국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관한 연구, 소외된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 민중운동, 일반인들의 일상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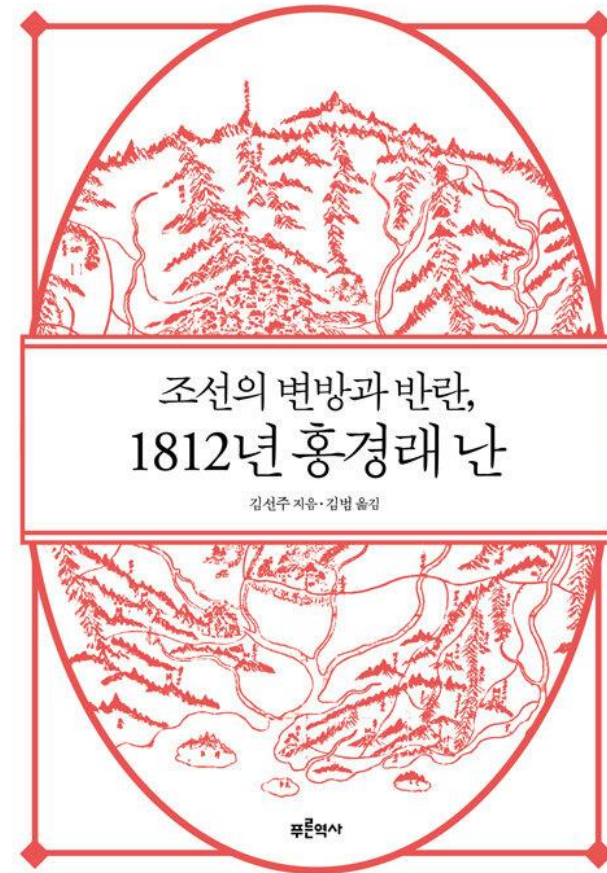
이상으로 김선주 교수님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n Jo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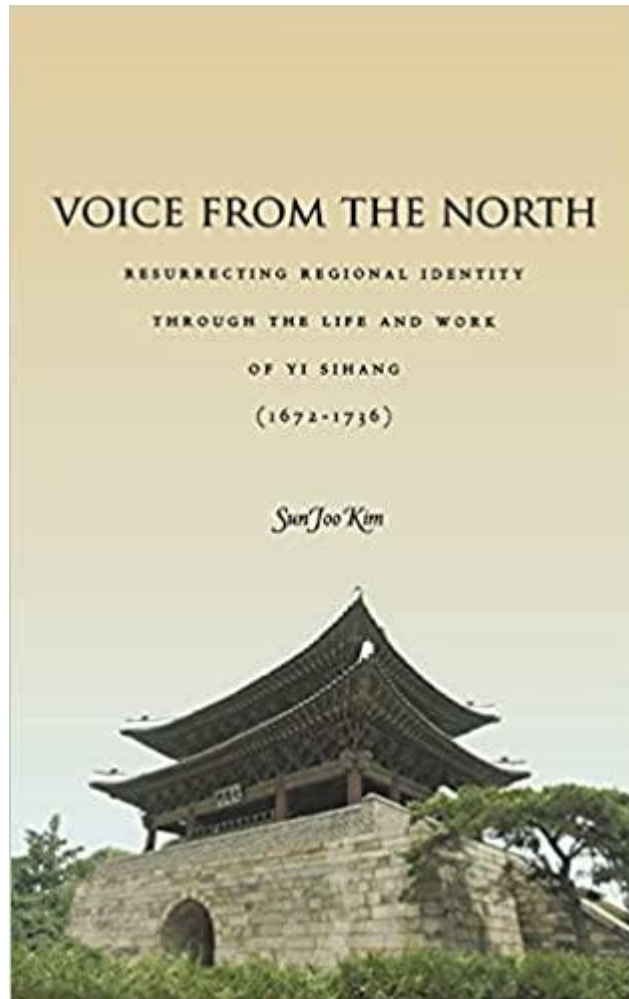
- Harvard-Yenching Professor of Korean History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 1984년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
- 2000년 워싱턴 주립대학 박사학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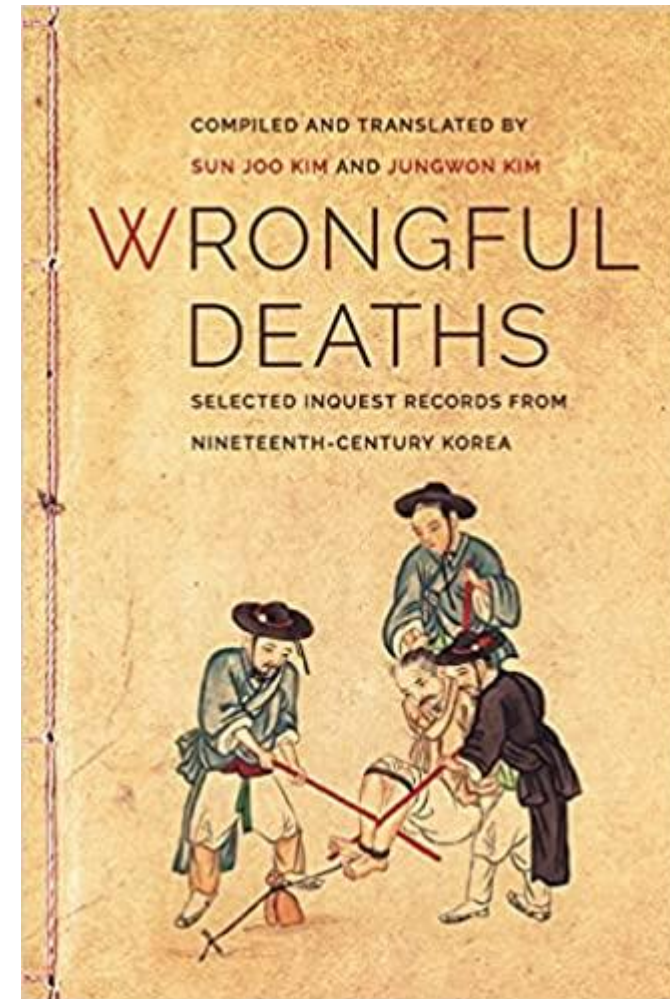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The Hong Kyŏngnae Rebellion of 1812***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 홍경래난』
(푸른역사, 2020)



Voice From The North: Resurrecting Regional Identity Through the Life and Work of Yi Shihang (1672-1736)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Wrongful Deaths: Selected Inquest Records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4)

- 2020 "Yu Taech'ing Family Documents and the Kigye Yu of Puyŏ." *Acta Koreana* 23.1: 65-96.
- 2020 "Inheritance Document and Mutual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hwahoe sŏngmun 和會成文),." *Acta Koreana* 23.1: 97-114.
- 2020 "Adoption in Chosŏn Korea and in the Yu Taech'ing Family." *Acta Koreana* 23.1: 115-34.
- 2020 "The Certified Copy of the Household Register (Chun hogu 準戶口) of the Yu Taech'ing Family and Household Slaves (solnobi 率奴婢)." *Acta Koreana* 23.1: 135-68.
- 2019 "My Own Flesh and Blood: Stratified Parental Compassion and Law in Korean Slavery." *Social History* 44.1: 1-25.
- 2016 "Yi Se-jik (Yi Il-jik) ūi hwaltong ūl t'onghae pon Taehan chegukki chŏngch'i wa oegyo" 이세직(이일직)의 활동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 정치와 외교 [A Study of Politics and Diplomacy during the Great Han Empire Seen Through Activities of Yi Se-jik]. *Yŏksa wa hyŏnsil* 역사와 현실 99: 191-230 (in Korean).
- 2016 "Travelogue from Cheju Island: Transcription and Annotated Translations." Co-authored with Kuniko Yamada McVey. In Sun Joo Kim ed., *Chejudo yŏhaeng ilchi* 濟州嶼旅行日誌 Travelogue from Cheju Island, 13-211. Seoul: Minsokwon.
- 2016 "A Mushroom Talk: From Natural Delicacy to Colonial Object." In Sun Joo Kim ed., *Chejudo yŏhaeng ilchi* 濟州嶼旅行日誌 Travelogue from Cheju Island, 234-57. Seoul: Minsokwon.
- 2015 "Chosŏn hugi P'yŏngyang ūi sajok"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 [Sajok Elites of P'yŏngyang in Late Chosŏn]. *Kukhak yŏn'gu* 국학연구27: 81-148 (in Korean).
- 2012 "Illustration of My Places of Work (Sukch'ŏn chea to 宿踐諸衙圖): A Visual Journey of One Man's Career." Co-authored with Kyongjin Hur. In Sun Joo Kim ed., *Sukch'ŏn chea to 宿踐諸衙圖* Illustration of My Places of Work, 64-77. Seoul: Minsokwon, 2012.
- 2012 "Illustration of My Places of Work (Sukch'ŏn chea to 宿踐諸衙圖) in Korean and English." Co-authored with Kyongjin Hur. In Sun Joo Kim ed., *Sukch'ŏn chea to 宿踐諸衙圖* Illustration of My Places of Work, 9-61. Seoul: Minsokwon.
- 2010 "Culture of Remembrance in Late Chosŏn Korea: Bringing an Unknown War Hero Back into History." *Journal of Social History* 44, no. 2: 563-85.

- 조선시대 사회사 및 문화사

평안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관한 연구,
소외된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 민중운동, 일반인들의 일상사

- 법제사, 감정사, 노예사, 미술사

- 방법론적으로 미시사적인 접근방식

- 하바드 엔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료 발굴

조선시대 입양과 유대청가 예조입안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정윤경

1. 조선시대 입양의 형태

조선시대 입양은 수양, 시양, 입후의 3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1) 수양(收養)과 시양(侍養)

수양과 시양은 고려의 입양 관행이 계승된 형태로 입양 대상과 목적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조선초기 가족제도와 관련한 여러 법제를 유교적 가족질서에 맞게 확립하는 과정에 입양에 따른 법제도 정립되었다. 1397년 상속 규정을 정비하면서 수양과 시양의 개념을 구분하게 된다. 이는 수양자녀와 시양자녀의 상속분을 차별화하기 위함이었다.

입양형태	기준	상속분
수양(收養)	3세 전에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1/7
시양(侍養)	3세 후에 입양	적자녀(嫡子女)의 1/7 또는 1/10

양부모는 양육, 봉양, 가족의 화합과 안정, 유력자와의 교결 등 사사로운 목적으로 입양을 하였으므로 수양, 시양의 관계는 그 안정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수양자녀와 시양자녀는 종법적 가계계승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양부모나 그의 친족과 친족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다. 또한 양부모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외에 타인도 입양의 대상이 되었다.

2) 입후(立後)

입후법은 유교적 가족질서인 남계 중심 종법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남성 중심인 유교적 상제를 행하기 위한 아들이 없는 경우에 입후법에 의거하여 계후자를 세워 후사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경국대전』의 「입후」 조의 규정에 따라 첩이 낳은 아들이 있는 경우는 입후할 수 없었으며, 입후의 대상은 부측의 동성 친족으로 지자(支子:만 아들 이외의 아들)로 규정하여 장자(長子)는 입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존속, 형제, 손자는 후사로 삼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소목의 차서를 존중함이었다. 결국 입후자는 대부분 본인의 아들 항렬의 혈족 중에서 선정하게 되었고 관에 고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경국대전』의 규정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첩자(妾子) 있음	「입후」조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지자를 세워 후사로 삼도록 한다.’	입후 불가	• 『속대전』에서 조항 삭제 • 양반가는 첩자 있어도 입후하는 것이 관례
	「봉사」조 ‘적장자에게 첩자만 있는 경우에 제(弟)의 아들을 후사로 삼기를 원하면 들어준다.’	입후 가능 첩자는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사대부가 는 후사로 삼기를 꺼림	

첩자가 있는 경우, 입후조와 봉사조의 규정이 괴리되는 면이 있었다. 또한 첩은 대부분 양인이나 천인이어서 첩자는 과거시험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천시되었으므로 사부대가에서는 그를 후사로 삼기를 꺼렸다. 결국 『속대전』에는 첩자에 관한 조항이 빠지게 되고 양반가에서는 첩자가 있어도 입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와 함께 계후자의 지위에 대한 규정도 차차 마련되어, 양부모와 계후자는 서로를 친자식, 친부모처럼 대하여야 했다. 『경국대전』의 복제에서도 계후자는 양부모와 양부모 쪽 친족에 대하여 모두 친자와 같이 복을 입고 친부모는 기년복을 입는 등, 친부모보다 양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재산 상속도 친자와 같이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의 풍속은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재산 상속도 자녀균분으로 이루어졌고 유훈봉사나 외손봉사도 이루어져 아들이 없어도 입후할 필요가 없었다.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서자가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적 규정과 실제 민간 습속 사이의 괴리가 있어 유교적 가족제도와 주자학적 의례가 양반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자리잡는데에 여러 세기가 걸렸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봉사는 아들이 말아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입후가 정착되고 17세기 후반이 되면 장자우대상속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18세기 이후가 되면 적장자가 없는 경우 남계친을 양자로 들여 집안의 대를 잇게 하고 제례를 받들게 하는 등 유교적 종법제도에 맞는 사회로 가족제도가 변화해갔다. 이에 조선전기와 달리 여성은 재산 상속과 봉사에서 제외되어 갔다.

2. 기계유씨 유대칭가(家) 고문서

유대칭가 고문서는 충청도 부여에 세거했던 유대칭을 선조로 하는 기계 유씨 가문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 예조입안 두 건이 있고 1721년과 1838년에 발급된 것이다.

예조는 입후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입안은 관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공증서로 가사 및 노비 등을 매매하거나 양자를 들일 경우에 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 때 관에서 발급한 공증서가 입안이다. 입후법에 의거하여 관에 고해 허가를 받은 증빙문서를 예조에서 발급한 계후입안이라 한다. 계후입안의 문서형태는 두 입안이 100여년 차이가 있음에도 형식이 거의 같아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해 구조와 내용이 비슷하다. 입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3-1〉 유대칭가의 예조입안

입안발행년도	양부	생부	양부와 생부의 관계	계후자	증인	승지	서명
1721	유명즙	유명보	명즙의 12촌형	유수억 (명보의 4자)	문장 유후	김재로	참판, 정랑
1838	유보환	유정환	보환의 18촌형	유치종 (정환의 2자)	문장 유한응	박종휴	판서

- 1) 1721년 입안, 양부 유명즙 - 생부 유명보 - 계후자 유수억(유중기)
먼저 두 집안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입후를 청원하는 소지를 예조에 제출한다. 양부 유명즙과 생부 유명보가 소지를 올렸다. 입양을 원하는 유명즙은 적

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밝혀 계후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켰다. 유명보는 유명즙의 12촌형이고 계후자 유수역은 유명보의 넷째 아들로 입후 대상자 규정에 맞는다.

2) 1838년 입안, 양부 유보환의 부인 송씨 - 생부 유정환의 부인 박씨 - 계후자 유치중
두 집안의 아버지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인들이 소지를 올렸다. 입양을 원하는 유보환가에서 적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밝혔고, 계후자 유치중은 유보환의 18촌형인 유정환의 둘째 아들로 입후 대상자 규정에 맞는다.

이와 같이 소지를 접수한 예조는 해당 지역의 관아에 소지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관청에서 두 집안에 입후의 경위를 묻는 질문서인 공함을 보내서 답변서인 답통을 받거나 관청으로 직접 소환하여 진술을 받아 이것을 예조에 보고하였다. 1721년 입안은 당사자 두 아버지가 관청에 직접 출두하였고, 1838년 입안의 경우에는 두 부인이 서면으로 소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소지의 내용은 당사자 외에 증인의 확인이 필요하기에 두 입안 모두 집안의 문장(門長)이 증인 역할을 하였다. 소지의 내용 확인과 증빙이 완결되면 예조에서 해당 계후사에 대한 계목을 작성하여 왕에게 올렸다. 계목은 소지 내용, 소지의 실상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내용과, 해당 계후사가 『경국대전』의 「입후」 조에 부합하므로 계후를 윤허해달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목은 담당 승지가 왕에게 올려 윤허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예조에서 청원자에게 계후입안을 발급하여 입후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입안 자체는 입안의 개요, 계목의 내용, 왕의 윤허를 받아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과 발급 날짜, 담당 승지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또한 당상관과 낭청이 서명하여 문서의 증빙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유대칭가 고문서에는 예조입안 외에 1721년 예조입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고목(告目)이다. 고목이란 각 관서의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에게 간단한 보고나 문안인사를 드릴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예조서리 장한익이 작성한 것으로, 예조입안을 발급받은 유명즙가에서 입안에 왜 당상관 두 명이 서명하지 않고 한 명이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편지로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 이 고목에 따르면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계목에는 담당 당상관 두 명이 서명을 하지만, 계후입안을 발급할 때는 당상관 한 명과 당하관 한 명이 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계후입안은 한 가문의 것으로 두 입안상의 양부들은 기계 유씨 진사공파의 시조인 유함의 자손들이다. 유함도 원래는 유강의 아들인데 그의 형 유진의 후사로 입후되었다. 그 이후 자손대에서는 입양의 예가 많다. 1721년 입안의 계후자 유수역은 족보에 유중기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회중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수역은 아명, 회중은 생부 집안의 돌림자인 중을 써서, 유명즙의 집안 계후자가 된 후 돌림자인 기를 사용하여 중기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명즙과 유명보 집안 거의 대등한 사회적 위치였으나 유명보는 가난했다고 기록되어있는 것에 비해 유명즙은 상당한 재력이 었던 것 같다. 유중기는 유명즙의 계후자가 되어 부여로 이주한 후에도 생가와 인연을 돈독하게 유지하였다. 생가의 만형을 모시고 살았고 형들과 동생의 제문을 지었다. 유중기의 조카 유언택 또한 유중기의 제문을 지어 다른 집안의 계후자가 되었지만 친밀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유중기는 양부와 그 집안의 선영을 경영하고 제사를 받는 일 등도 주도하여 두 집안의 어른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집안일을 주관하였다. 1838년 입안은 유중기의 현손(손자의 손자)인 유보환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 입양한 사후입안의 경우이다. 생부와 양부 모두 진사공파의 후손이다. 계후자를 세울 당시 양부와 생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부인들이 소지를 올려 입안을 받았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경국대전』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예외적인 입후가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 장자는 입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기계 유씨 족보를 보면 장자를 계후자로 세운 경우가 있었다. 가까운 남계친 사이에서 중복적인 입후를 하여 집안의 유대를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재산을 보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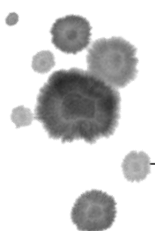
한편, 기계 유씨 족보를 살펴보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도 입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유흥의 장자 유대술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세 아들은 후사가 없었지만 입후를 하는 대신 넷째 아들 유무증이 승중(집안을 거느릴 권리를 이어받음)하였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입후는 법전의 규정과 상관없이 집안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제사를 모시고 대를 잇기 위해 계후자를 세우는 일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확고한 풍습으로 정착되었지만 아들이 없는 모든 집안에서 양자를 세웠던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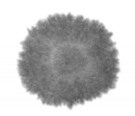
조선시대 입양과 유대청가 예조입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정윤경



목 차

- 조선시대 입양의 형태
 - 기계 유씨 유대칭가 고문서
- 
- 

조선시대 입양의 형태

● 수양(收養), 시양(侍養), 입후(立後)

입양형태	기준	상속분
수양(收養)	3세 전에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1/7
시양(侍養)	3세 후에 입양	적자녀(嫡子女)의 1/7 또는 1/10

첩자(妾子) 있음	「입후」 조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 종지자를 세워 후사로 삼 도록 한다.'	입후 불가	『속대전』에서 조항 삭제 - 양반가는 첩자 있어도 입후하는 것이 관례
	「봉사」 조 '적장자에게 첩자만 있는 경우에 제(弟)의 아들을 후사로 삼기를 원하면 들 어준다.'	입후 가능 첩자는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사대부가는 후사로 삼기를 꺼려함	

기계 유씨 유대청가 고문서

康熙三十八年己卯十一月初二日申和會成文

右文為 先世若干田民已去辛酉分先人同生中各為分給單收和
會文記知未及修正不幸意是辛酉以茲以申中相議和云而一係前
單 奉祀祭除出為查其餘田民已各完執等分給為別附田民既
既有文卷已仍不為載記為多手後次子阮中章有事相為云未持此文
示正事

奉祀祭故原已香二所生原庚子年而申床字當七斗為呂句字田十下
又十下

韓世英於新故原故原者介四所生原發原年而改故原云梅二所生原
絕公年 於付應原可取一所生原甲辰年甲辰大興應原了介四所生原
改香年因原五所生原 年羅州外論伊四所生原今年生清安男字川
府字當十五斗為呂羅字當五斗為呂通字當十斗為呂明字當八斗為呂應字
當六斗為呂府字田一月耕羅字田一月耕羅字田一月耕同字田一月耕
床字田一月耕

俞禕於新故原故原者介一所生原梅香年丁卯二所生原梅仙年未
於付原故香一所生原香禮年而年同原二所生原庚辰年庚辰故原者介
四所生原金伊^年庚辰大興如山金年改應應字當四斗為呂同字當六斗為呂
床字當七斗為呂該字當二斗為呂床字當五斗為呂同字當三斗為呂該字
當五斗為呂該字當五斗為呂清安府字當三斗為呂該字田一月耕同字田一
耕句字田一月耕同字田一月耕同字田一月耕

庚辰韓宏於故原故原者介三所生原仙非年原順香一所生原故
奉年杏井園字當五斗為呂該字當四斗為呂該字田一月耕又田朝前
耕瓶字田一月耕并一日耕的字田一月耕北過帝字當三斗為呂該字當
一斗為呂同字當三斗為呂該字

幼學 韓世英

通德郎俞 禕

韓 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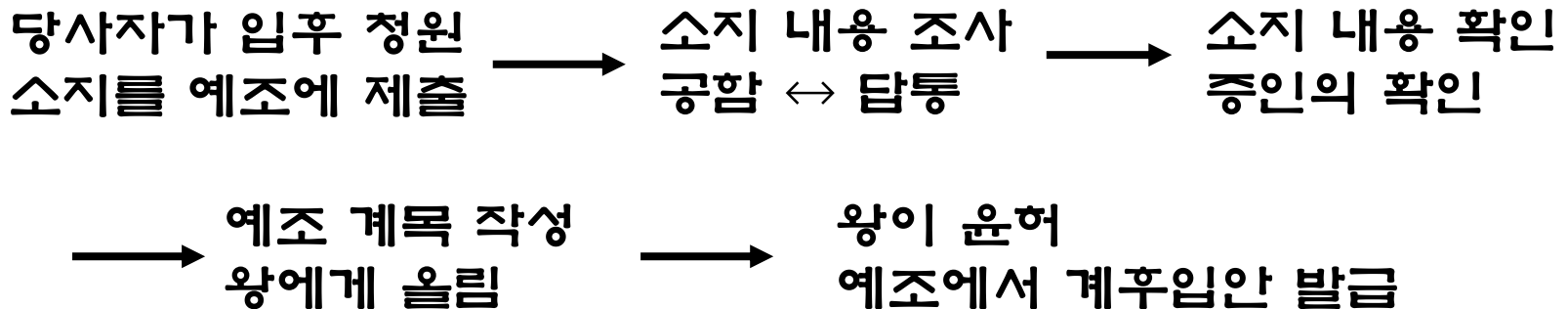
筆執俞禕子 命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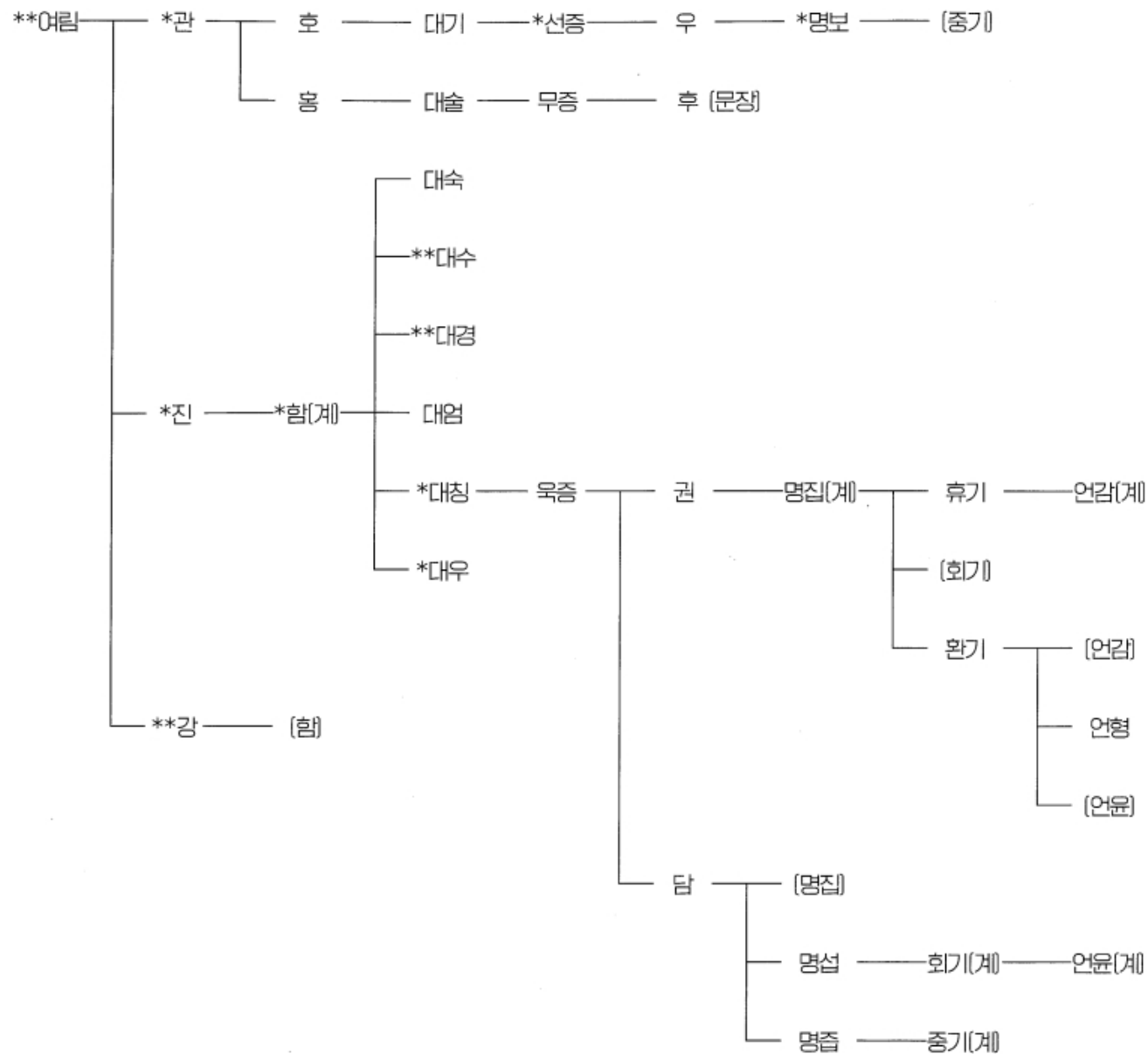
기계 유씨 유대청가 고문서

- 예조와 입안
- 입후 절차

〈표 3-1〉 유대청가의 예조입안

입안발행년도	양부	생부	양부와 생부의 관계	계후자	증인	승지	서명
1721	유명즙	유명보	명즙의 12촌형	유수억 (명보의 4자)	문장 유후	김재로	참판, 정랑
1838	유보환	유정환	보환의 18촌형	유치종 (정환의 2자)	문장 유한응	박종휴	판서





감사합니다

